

장액성 유두상 낭성 선암종의 경우 36 예 중 30 예(83.3%)에서 세포 검사에서 양성이었으며, 분화 정도에 따라 핵의 모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많은 양의 악성 세포가 도말되고, 모두 단단한 유두상의 덩어리로 관찰되었다. 이 유두들은 매우 불규칙한 돌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세포질 내 공포가 흔히 관찰되었으며, 드물게 사중체도 도말되었다.

점액성 낭성 선암종은 32 예 중 9 예(28%)에서 양성이었으며 크고 작은 단단히 짜여진 세포 군집으로 도말되었으며, 분화가 좋을 때는 비교적 변연이 매끈하고, 핵과 변연 사이에 비교적 균일하게 풍부한 세포질을 보였다. 간혹 개개의 세포로도 도말되었으며, 이런 세포들은 큰 공포를 가지고 있었으나, 핵의 다형성이 심하여 점액성 선암세포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자궁내막 암종은 14 예 중 3 예(21.4%)에서 양성이었으며 자궁내막 암종의 복강내 전이와 형태학적으로 감별이 어려웠다. 또한 전이성 암종 중 Krukenberg tumor를 제외한 위·장관의 암종과도 감별이 어려웠다. 종양 세포는 분화도에 따라 개개의 세포로 또는 군집을 형성하는 양상이었으며 세포 덩어리는 비교적 매끈한 변연을 보였고, 세포질은 비교적 풍부하였다.

이 외에 투명세포 암종 2 예 중 1 예, 미분화 암종 3 예 중 1 예, 난소내 전이성 암종 16 예 중 9 예, 자궁내막 암종 4 예, 혼합물리리안 종양 3 예, 생식세포 암종 3 예가 복강내 세포학적 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다.

## 5. 상피형 악성중피종의 세포병리학적 검색 Cytopathologic analysis of malignant mesothelioma

박인애, 함익근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 병리학 교실

악성 중피종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서 반복되는 흉강 삼출액을 초래하여, 임상적으로나 세포 병리학적으로나 전이성 선암과의 감별이 요구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증례들이 많지 않아 세포 병리의들이 악성 중피종의 세포 병리학적 소견에 익숙하지 않아 이들을 감별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 이에 저자들은 서울 대학교 병원 병리과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확진된 5예의 세포 병리학적 소견을 검토하여 보았다. 총 5예 중 성별의 선호나 석면과의 직업적 관련성은 찾기 어려웠으며, 5예 모두 상피형의 악성 중피종이었다. 많은 예 들에서 세포들이 많이 관찰되고 특히 유두상 세포 군락을 형성하여 전이성 선암과의 감별이 어려웠으나, 세포질 경계가 뚜렷하고 주변에 날개로 흩어진 중피세포와의 유사점으로 중피세포 기원임을 알 수 있었고, 특징적으로 크기가 커진 중피세포들, 특히 핵의 크기의 증가는 없이 세포의 크기만이 커진 다핵 거대 세포들, 크기는 작으나 호산성 세포질과 소핵핵을 가져 성숙 편평 상피세포와 유사한 세포들이 관찰되었고 세포내에 글리코겐과 유사한 물질을 함유한 세포들도 관찰되었다. 핵들의 크기가 커지고 핵인이 뚜렷해진 경우들도 있었으나 핵의 형태 만으로 악성세포로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세침 흡인 생검된 예 들에서는 심한 유두상 형태를 보여 기관지 폐포암과의 감별을 요하였다.